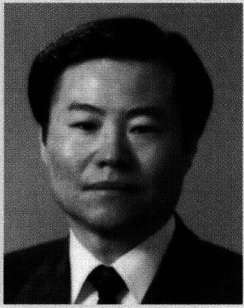


최적의 소방설비 유지를 위한 제언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 태 호

금융시장 불안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벤처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실물경기의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건설경기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건설경기의 부진은 소방제품의 생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IMF로 인한 구조조정에서 화재안전담당 부서와 인원의 감축이 가장 심하여 최적의 소방설비 관리는 더욱 어려워졌다.

소방설비의 구성품이 소비재가 아닌 화재예방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관리상태에 따라 제품의 내구연한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소방설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내구연한은 길어질 것이고 반대로 관리가 부실하면 수명은 단축될 것이나 더욱 중요한 것은 화재시 그 성능을 보장 받을 수 있는가 이다. 따라서 소방설비의 제품들은 화재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보증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소방제품의 품질보장을 위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검정 및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강제성이 있는 반면 미국, 영국 등 구미권은 임의제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성능위주로 되어있다. 이는 화재위험에 대해 의식이 높은 국가에서는 자율적인 취사선택이 가능한 반면 의식이 낮은 국가에서는 법에서 강제로라도 규정하여 화재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뜻이 포함된 것이다.

우리 조합에서는 회원사에게 소방제품에 따라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자재 공동구매로 규격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같은 제품이라도 관리상태에 따라 내구성은 말할 것도 없

고 화재시 그 역할이 결정되는 특성으로 인해 제조업체가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시설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완벽한 제품사용과 병행하여 관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위해 소방전문업체가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비용을 면적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보다는 설치된 소방기기의 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방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방용기계기구가 아무리 완벽하게 제조되고 철저히 관리된다 하더라도 모든 공산품은 품목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노후화되고 기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소방시설 점검 대상건수가 500,000건으로 소방공무원과 점검정비업체만으로 정밀하게 실시할 수 없고, 11층 이상 16,000건의 특수건물을 소수의 인원으로 점검하고 있음은 점검정비제도에 큰 허점이 있다고 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물 준공이후 일정기간 경과시 대상건물을 세분화하여 민관 소방점검단 구성을 제도화하고 의무적으로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며, 한편 소방제품이 경년 변화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방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현행 점검정비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사 및 자료 입수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화재위험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화재위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수한 법적 제도도 필요하나 현재의 제도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규제만 인식하고 있는 의식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씨랜드 화재나 인천호프집 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참사가 발생된 직후에는 여론이 불같이 일어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법규정을 귀찮게 생각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현재의 제도상 소방제품을 법적 구비제품으로만 생각하여 성능보다는 저가격의 제품을 설치하여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완벽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검정제도는 유지하되 좀더 포괄적이고, 유연한 대응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점검에 필요한 필요공수에 의해 점검하게 하고 점검사항에서 미비되면 시설주 또는 건물주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재산을 쌓도록 노력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쌓아온 부(富)와 생명을 지켜야 하는 시대임을 인식하여 완벽한 소방제품을 생산하고 건물주와 시설주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시설 투자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안락한 새 천년, 화재 없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합시다.